

인민의 보금자리들을 보며



2022년을 앞둔 지난해 12월 30일과 31일 공화국의 집터지구에서는 새집들이경사가 펼쳐져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었다.

금골1동, 금골2동, 금골3동, 태흥2동, 백금산동, 탐사동의 깊은 협곡을 따라 단층, 소층, 다층, 고층, 다락식살림집들이 조화를 이루며 준비하게 솟아난 모습은 그대로 선경이 변혁하는 새시대의 선경이었다.

이날 평산도시가 들쭉하게 흥겨운 춤판이 펼쳐졌고 집집마다에서는 행복의 웃음소리가 넘쳐났다.

단천시 금골1동에 새집들이한 간혜영녀성은 《삼지연시에 펼쳐진 인민의 리상향을 보면서 정말 부러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에게도 이런 꿈같은 행복이 차례했습니다.》라고 격정에 넘쳐 말하였다.

집적광업연합기업소 금골광산 4.5형 로동자 최성민은 《인민이 주인으로 된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가 있어 우리 광부들이 영웅으로 떠날 줄리우며 오늘을 이렇게 구경같은 새집을 받아안았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광물을 생산해내겠습니다.》라고 결의하였다.

집터지구에서 솟아난 새 선경은 공화국인들의 가슴마다에 조선로동당이 펼친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의 참모습으로, 영원한 만복의 화폭으로 새겨졌다.

어찌 집터뿐이랴. 평양의 명당자리에 평범한 인민들이 살게 주려주신 《경루동》이 아름다운 구슬다락과 같은 자태를 드러냈고 송신, 송화지구에서 1만세대 건설이 기본적으로 결속되어 또 하나의 건축대군에 이르렀으며 삼지연시가 문명향 산간도시의 전형으로 천지개벽되었다.

그뿐이 아니다. 지난 10년 사이에 한도 평양의 중심부에 현대적인 창건거리가 번듯하게 일떠서고 미래과학

자거리, 령명거리가 솟아나 근로자들에게 기쁨을 더해 주었다.

은 나라 방방곡곡이 사회주의선경으로 변모되어가고 자연의 재남이 휩쓸었던 은과군 대청리, 금천군 강북리를 비롯한 여러 지역이 행복의 보금자리로 전변된것은 언제나 인민의 제일로 위해서 공화국에서만 있을수 있는 현실이다.

하기에 공화국인민들은 영원한 행복의 보금자리인 사회주의조국을 위해 자기의 땀과 열정, 애국의 뜨거운 파를 아낌없이 바쳐가고있는 것이다.

하지만 지구상에는 보금자리가 없어 한지에서 생활하고있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

몇해전 어느 한 자본주의 나라에서는 집이 없게 여겨져기를 자랑하던 사람들이 거리에서 얼어죽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새들도 추위를 막아줄 제

등지가 있건만 이 나라 사람들은 제몸 하나 건사할 거처지가 없어 다리밑이나 주차장을 해매다가 얼어죽지 않으면 안되었으니 이 얼마나 기막힌 현실인가.

공개된 자료에 의하더라도 이 나라에서 떠돌이생활을 하고있는 사람들은 수십만명에 달한다고 한다.

오죽했으면 이 나라의 어느 한 사회활동가가 근로대중의 살림집문제해결에 전혀 눈을 돌리지 않았고있는 당국에 대한 항거의 표시로 평화수집나 되는 강추위속에서 새날이 밝도록 집없는 사람들에게 대한 사회적보호를 호소하였는가.

이것은 비단 이 나라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남조선도 마찬가지이다.

자료에 의하면 남조선에서는 2021년 1월부터 12월 중순까지 전 지역의 아파트값이 13.11%나 뛰어들며 2020년(6.43%)의 2배를 넘었다고 한다. 거기에

다 전세와 월세까지 급격히 올라 주민들의 원성은 날로 높아만 가고있다.

남조선의 한 언론은 《치솟아오른 부동산은 (가진자)와 (못가진자)의 간극을 지속적으로 넓혀왔다. 부동산투기라는 사회적각축에 참가하지 못한이들은 도시중심에서 변두리로 밀려났고 서울에서 주변지역으로 쫓겨갔다. 재개발과 철거의 폭력으로 하여 이들은 지하로 숨어들고있다.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고있는것이 이 땅의 현실이다.》고 지적하였다.

현실은 인민의 존엄과 행복, 참다운 삶을 보장하여주는 진정한 인민의 보금자리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것을 똑똑히 보여준다.

쫓겨진 집에 쫓그락드는 삶

남조선 잡지 《주간경향》(2021년 12월 20일호)는 남조선에서의 열악한 주택환경에 대하여 이렇게 지적하였다.

《통계청》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보면 일반가구의 절반가량(51.5%)이 아파트에서 산다. 나머지 절반은 빌라, 원룸 등으로 불리는 주택에 거주한다는 의미다. 다세대, 다가구주택의 80~90%가 지자체단속에서 불법으로 적발된다.

세상은 늘 아바트이야기로 씨포럼집만 법을 어기고 지는 다세대, 다가구주택에 《철반의》 사람이 살고있다.

다세대, 다가구주택밀집지역의 건축물대장을 확인해보면 지하주차장, 물탕구대선지어진 집이 곳곳에서 발견된다. 수령으로는 칸막이를 쳐서 여러개로 쪼개고 수직으로는 층층하면 더 많은 《집》이 만들어진다.

상가나 계단으로 허가받고 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하면 집은 더 늘어난다. 쪼개거나 층층해도 안에서 보나 밖에서 보나 우리가 아는 집

이다. 건축물대장을 보기 전까지 불법주택인지 가능하기 어렵다.

상가를 주택으로 바꾸고 방을 쪼개거나 증축하는 리유는 돈이다. 세입자에게 더 많은 월세를 받거나 각종 규제를 줄이기 위해서다.

구축 다세대, 다가구주택을 중심으로 쪼개기는 폭넓게 퍼져있다. 서울 마포구, 서대문구 대학가일대 건물물 두차례에 걸쳐 조사했더니 쪼개진 집이 절반을 넘었다.

대학가에만 쪼개진 집이 만연한것은 아니다. 다세대, 다가구주택밀집지역일수록 쪼개진 주택비율이 높았다.

송파구의 한 다세대, 다가구주택밀집지역 21개 주택을 조사해봤더니 11곳이 쪼개진 집이었다. 원래는 6가구만 살아야 하지만 17개의 가수베판이 벽을 타고 내려오는 집, 허가는 의원으로 받아놓고 4개로 쪼개진 현판문 사이간격이 50cm인 집도 확인되었다.

쪼개지는 서울밖에서도 변

본사기자

사람이 살고있다.

다세대, 다가구주택밀집지역의 건축물대장을 확인해보면 지하주차장, 물탕구대선지어진 집이 곳곳에서 발견된다. 수령으로는 칸막이를 쳐서 여러개로 쪼개고 수직으로는 층층하면 더 많은 《집》이 만들어진다.

상가나 계단으로 허가받고 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하면 집은 더 늘어난다. 쪼개거나 층층해도 안에서 보나 밖에서 보나 우리가 아는 집



세계와 당당히 경쟁해간다

김일성종합대학 물리학부 빛전자연구소는 훌륭한 과학교육성과를 수많은 내놓은 것으로 하여 국내외의 관심을 끄는 실력있는 연구집단이다.

최근년간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국제학술잡지들에 발표된 김일성종합대학의 논문들 중에서 물리학부가 많은 몫을 차지하고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권위있는 국제학술잡지들에 발표된 논문의 질반정도가 이곳 연구소에서 나왔다고 한다.

몇개 나라의 독점물로 되어있는 통신기술개발과 세계적수준의 레이저투영기확립, 정밀측정기술개발과, 방사정보학부의 연구성과들은 김일성종합대학 물리학부 빛전자연구소 연구자들의 피라는 정결과 사색의 산물이다.

이 연구소의 매 연구실과 연구조들은 다 자기 분야에서 무수한 실적을 권위를 지닌 학술총심의 연구집단이다.

지난 기간 연구소에서는 여러명의 20대박사와 40대의 교수수를 포함한 교수학직소유자들이 배출되었다.

연구소에는 2018년 국가최우수과학자, 기술자로 선정된

교수 박사 김남철집장도 있고 제14차 전국학원대회에서 토론하는 영예를 지닌 교수 박사 임성진선생도 있다. 연구소인원의 절반이상이 나라의 최고과학기술상인 2.16과학기술상을 수여받은 자라고도 지고있다.

4년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국제인명사전에서 2018년 《조선을 대표하는 학자》로 등록된 3명이 모두 김일성종합대학에서 나왔는데 그들중 2명이 바로 이 연구소에 있다.

연구소의 교원, 연구사들은 오늘날도 첨단과학의 요새를 점령하기 위한 연구사업에 자신들의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가고있다.

사랑은 아름다운것이다. 그래서 어느 한 작가는 뜨거운 사랑, 진실한 사랑을 안고 사는 사람은 시인이 되고 작가가 되기도 한다고 하였다.

그러면 뜨겁고 진실한 사랑은 과연 어떤것인가.

이에 해답을 주는 충격적인 두 사실이 있다.

최근 남조선의 한 잡지에는 일명 《교제살인》이라는 새로운 범죄어와 함께 련관있었던 상해를 무참하게 살해한 한 청년의 범죄사실이 실려 사람들을 경악케 하였다.

그 청년이 련인을 살해한 동기는 처녀가 자기를 배반하고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가려고 하였기때문이라는것이다.

일컷 보면 련인에 대한 지나친 사랑이 잔인성을 불러온듯하다. 하지만 그 처녀가 돈이 많았다는 사실은 그 범죄사건이 단순한 배신

이와 거의 비슷한 시각에 공화국의 한 결혼식장에서는 만사발을 올린 류다른 결혼식이 있었다.

《치녀어머니》라고 불리는 한 처녀에게 장가를 가는 청년, 그 청년은 무한히 행복한 미소를 담고 다소곳이 머리를 숙인 새색시의 손을 꼭 잡고있었다.

《아버지, 어머니!》 신랑신부를 부르는 청혼은 한 소녀의 목소리에 모두의 시선이 그쪽으로 쏠렸다.

《치녀어머니》가 말하 키운 부모없는 아이였다.

어느 한 병원의 간호원으로 일하던 신부는 어느날 척추하반신마비로 수술을 받은 이 소녀를 맡아 간호하게 되었다.

은 병원의 지극한 성의와 방조속에 끝내 다시 대지를 활보하게 된 날 소녀는 처녀의 품에 갈이한 공화국의 한 청년의 모습을 얼마나 대조적인가.

북과 남의 청년남녀를 통해 보는 두 제도, 여기서 사람들의 품에 갈이한 미레도 함께 엿보는것이다.

《엄마라고 불리도 되나

요?》

처녀는 눈물을 머금고 혼연히 고개를 끄덕였다.

바로 처녀의 아름다운 소행을 알고 그 처녀에게 반한 총각, 그가 바로 결혼식장에서 《치녀어머니》와 나란히 함께 서서 소녀에게 정깊은 신경을 보내고있는 신랑이었다.

신부에게 가진것이 있다면 《치녀어머니》라는 류다른 호칭과 고운 마음씨뿐이다.

바로 청년은 그것을 큰 재부로 여기고 처녀와 일생을 약속한것이다.

사랑은 그자체의 의미로 아름다운것이 아니다.

사랑을 지닌 인간들의 정신세계와 그 고결함에 의해 아름다워지는것이다. 돈때문에 련인까지 살해한 한 청년과 처녀의 아름다운 마음을 더없는 재부로 여겨 일생을 갈이한 공화국의 한 청년의 모습은 얼마나 대조적인가.

북과 남의 청년남녀를 통해 보는 두 제도, 여기서 사람들의 품에 갈이한 미레도 함께 엿보는것이다.

김주경

사랑과 재부

북녘의 교육현장을 가다

평양교원대학 (1)

지금도 때때로 어린시절을 추억할 때면 선생님이 들려주었던 하나의 이야기가 떠오르곤 한다.

한 바그다드상인이 깊은 밤에 홀몸으로 황량한 산길을 걸어가고있었다. 산기슭에 이르렀을 때 어디선가 그에게 《발밑에서 돌맹이를 주어가시오 가라구. 레일 그대는 기뻐하기도 하고 후회하기도 할거요.》라고 하는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다.

상인은 그 권고대로 돌맹이 몇개를 주어 호주머니에 넣고 계속 가던 길을 다그쳤다. 이튿날 호기심을 참지 못해 날이 밝아오자 돌맹이 하나씩 들어다보던 그는 깜짝 놀랐다. 지금까지 본적이 없는 희한한 보석이었던것이다. 호주머니의것을 몽땅 꺼내보니 어느 하나 보석이 아닌것 없었다. 상인은 너무 기뻐 어쩔줄 몰라하였다. 그러다가 그는 인차 그때 너무 적게 주어진것이 후회되었다.

선생은 계속하여 이야기했다.

《이것이 바로 지식입니다. 지식은 바로 그런 보석과도

같은것이어서 어른이 된 후에도 언제나 적게 배운것을 후회하게 된다니다. 학생들도 바그다드의 상인이 되질 말고 제때에 지식을 가득가득 채워나가야 합니다.》

선생의 이 말은 어린 나의 뇌리를 딱 채웠고 일생 지침이 되어 나를 각성시켰다. 대학을 졸업하던 날 나는 어린시절의 담임선생을 찾아가 즐겁게 그때 일을 회억했다. 머리에 백발이 엮은 너선생은 웃으면서 이야기했다.

《사실 그 말은 나의 말이 아니었다.》

《후에 저도 알게 되었습니다. 로씨야과학자이며 노벨수상자인 바블로브선생의 말이라는것을. 하지만 선생님이 그때에 저희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여주시지 않았더라면 아마 그렇게 피라게 공부하지 못했겠것입니다. 선생님이 제때에 그 말씀을 해주셨기때문에 제가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할수 있었습다. 정말 고맙습니다.》

나는 지금도 내가 거둔 성과들은 모두 그 선생이 제때에 학습열의를 가지도록 이

끌어주었기때문이라고 생각하곤 한다.

그렇게 소학교시기는 아이들의 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말할수 있으며 교원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아이들의 머리에 착륙차처럼 새겨들어 가는 나이가 지긋이 되는것이다.

몇해전 어느 나라에서는 대학교수들이 한자리에 모여 소학교교육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것인가에 대한 토의를 진행하였다고 한다. 어린 학생들에 대한 학교의 책임교육, 부모의 과욕으로 인한 공부강요가 자립정신을 심어주지 못하고있는 문제 때문이었다.

지금까지의 소학교교육은 밤을 떠먹여주는 식의 교육으로서 자발적인 학습능력이 부족하며 다만 시험을 잘 치기 위한 요령만 익혀 교육시켜왔다는 의견이었다.

그런 결과 자립성과 적극성이 마비되어 수업중 모르는 것이 있어도 일어서서 질문을 하지 못하고있는 학생들이 많다고 한다.

지금도 어디서나 인재를

찾고 어디 가나 인재가 필요한 시대이다. 인재를 찾아내고 인재를 키우며 인재를 아끼고 인재를 내세우고 인재에 의거하여 나라의 부강발전을 이룩하려는것이 세계 모든 나라와 민족의 공동의 념원으로 되고있다.

이런 인재에 대한 교육은 어릴적부터 시작되며 그들을 키우는 사람이 바로 소학교 교원이다.

사람은 지적투박가 발전하는 중요한 단계인 어린시절에 어떤 교원을 만나 어떻게 교육을 받게에 따라 현실을 보고 대하는 관점과 립장이 달라진다. 기초가 든든하면 어떤 건물도 다 세울수 있는 것처럼 기초학력이 든든하면 두려울것이 없다. 이로부터 아이들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는 소학교교육자양성의 원장인 교원대학을 잘 꾸리고 교원들의 실력을 높이는 문제가 중요하게 부상해 된다.

교원대학의 수준은 곧 소학교교육자의 수준이고 소학교교육자의 수준은 매개 학생의 수준으로 되며 학생의 수준은 나아가서 그 나라의 미래를 결정짓게 되는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의미에서 2018년 4월에 찾은 평양교원대학에 대한 참관은 나에게 있어서 의미있는 일이었다.

재중동포 김영란

농장벌레 울리는 발동소리

이러한 새 소식들을 읽어가 나의 뇌리에 얼마전 취재실에서 인상깊게 들었던 이야기가 다시금 되새겨졌다.

그날 나는 지난해 다수확농민으로 된 황해북도 구천군 강북리의 여성작업반장을 찾아가었다.

거름을 실어나르는 트랙토르에서 나를 맞이한 그녀 작업반장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저에게는 이 트랙토르의 발동소리가 단순한 기계의 동음소리만 들리지 않습니다. 오를때 어려운 때 우리 농촌을 도와 영농자와 농기구까지 한가득 싣고 펼쳐나선 도시주민들의 적극적 지원이 있어 더욱 성수가 나고 올해의 알곡고지점령은 문제없습니다.》

그러나 공화국에서는 어렵

고 힘든 농장으로 자원 진출하는 청년들과 지원자들을 태운 배스들, 영농물자를 싣는 도시의 농촌지원차량행렬이 이 시각도 농촌으로 끊임없이 달려가고있다.

이 끝없이 흐르는 대오와 함께 농기계들의 발동소리가 울리는 형동병전야는 얼마나 벽찬 모습을 펼치고있는가.

도시와 농촌이 한마음한 뜻이 되어 울러가는 사회주의 농촌의 힘찬 발동소리.

이것이야말로 조선로동당이 제시한 새로운 사회주의 농촌건설강령에 이 땅 수천만인민이 하나되어 총성으로 화답하는 심장의 박동소리, 해마다 풍요한 가을을 안아 오려는 공화국의 힘찬 숨결이 아니겠는가.

림광훈